

가제노 마쓰바라(바람의 숲밭)

1711년 노시로 시민들은 해안가에 곶솔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해(한국 동해)에서 내륙으로 불어오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약 700만 그루의 곶솔을 보유한 일본 최대 규모의 곶솔림이 되었습니다. 내륙 쪽으로 폭이 1km이며, 해안선 14km에 걸쳐 있는 숲의 면적은 760헥타르에 달합니다.

오늘날, 숲은 '가제노 마쓰바라(바람의 숲밭)'로 알려진 도시공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무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의 힘으로 휘어져 지금은 바다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 외에도 '가제노 마쓰바라(바람의 숲밭)'의 나무들은 1983년 10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일본해(한국 동해) 중부 지진에 의한 쓰나미(지진해일)로부터 노시로시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쓰나미(지진해일)는 먼저 나무에 부딪혔기 때문에 시가지에 도달할 무렵에는 크게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원에서는 곶솔 외에 사토자쿠라 벚나무, 가막살나무, 해당화, 애기똥풀, 보리수나무 등 300종 이상의 식물과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숲에는 꼬까참새, 딱새, 황금새, 붉은가슴울새 등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공원 주변에는 세 개의 산책 코스가 있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2km 코스는 조깅 전용이며, 6km 코스는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만들기 길'이라 불리는 3.6km 코스는 고르지 않은 길을 걷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탄력성 있는 우드칩이 깔려 있습니다.